

제주도 法華寺 三尊佛像과 南京 大報恩寺의 관계

朴 現 圭 (順天鄉大)

I. 서론	의 목적
II. 法華寺 三尊佛像의 명나라 이송 과정	V. 法華寺 三尊佛像의 행방
III. 大報恩寺의 연혁과 명 永樂帝의 중건	VI. 南京博物院 소장 木造 觀音菩薩像
IV. 法華寺 三尊佛像을 가져간 명 永樂帝	VII. 결론

I. 서론

제주도는 한반도 남해 바다에 속해있는 한국 최대의 섬이다. 이 섬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잦은 왕래가 있었고, 또한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동남아 등지와 활발한 해상 교류를 전개했다. 오늘날 제주도 西歸浦市 河源洞에는 아름다운 연꽃 池塘을 가진 法華寺라는 사찰이 있다. 법화사의 창건 시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아시아 해상을 주도한 장보고 시대에 법화사가 창건되었다는 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법화사지 발굴조사에 의하면 1269년(고려 元宗 10)에서 1279년(忠烈王 5)에 중창을 마쳤다는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이 시기에 크게 번창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¹⁾ 1408년(조선 太宗 8)에 사찰 노비수의 삭감

1) 世安建築事務所編,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西歸浦: 西歸浦市, 1

에서 보듯이 이 이전에 법화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비보사찰로서 제주도에 가장 거대한 사찰이었다.

1406년(태종 6년; 永樂 4)에 법화사는 명나라와 외교적인 미묘한 문제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갔다. 명 永樂帝(朱棣)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법화사에서 모시고 있던 아미타 삼존불상을 요구하게 된다. 조선 태종은 명나라의 요구를 제주도 영토존속과 연결시켜 제주도 법화사에서 삼존불상을 가져와 명나라로 보냈다. 법화사 삼존불상은 명 영락제의 원찰인 南京 天禧寺(곧이어 大報恩寺로 개명)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남경에서 법화사 삼존불상을 찾는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과 12월에 남경 대보은사와 관련 기관을 찾아 법화사 삼존불상의 행방을 조사했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화사 삼존불상과 남경 대보은사를 중심으로 삼존불상과 대보은사의 관계, 대보은사의 유적, 삼존불상의 현존 유무, 南京博物院에 보관된 조선인 기증 遼代 불상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II. 法華寺 三尊佛像의 명나라 이송 과정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이 명나라로 이송된 과정에 대해 기술되어있다. 여기에 대해 선행 학자들은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다.³⁾ 1406년(태종 6; 영락 4년) 4월에 명나라 內使 黃儼을 비롯

판, 1998.9), pp.28-29.

2) 2008년 9월에 필자는 장보고연구회 회장 金文經을 모시고 남경으로 가서 대보은사터와 관련 기관을 찾아보고 법화사 삼존불상의 행방을 조사했다 이때 법화사 전 주지 是夢은 이번 답사 길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다. 12월에 남경시박물관에서 대보은사 발굴 현장에서 몇몇 불상이 출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 번 남경을 방문하여 출토 유물을 확인했다.

3) 文明大, 『法華寺의 歷史와 意義』(『地方文化財 濟州法華寺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서귀포: 서귀포시, 1판, 1985.4.1), pp.18-21;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西歸浦: 西歸浦市, 1판, 1992.11), pp.26-27.

한 일행이 칙서와 자문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다. 『태종실록』 태종 6년 4월 19일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명나라 內使 黃儼, 楊寧, 韓帖木兒, 尙寶司尙寶 奇原 등이 이르니, 山棚을 맺고 儼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時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盤松亭에 나가서 百戲를 베풀고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렀다. 勅書는 이러하였다. “짐이 先皇考와 先皇妃의 은덕을 거듭 생각하여 薦揚하는 祭典을 거행하고자 하여, 특별히 司禮監 太監 황엄 등을 보내어 그대 나라와 耽羅에 가서 銅佛像 몇 좌를 구하게 하니, 잘 도와 성사시켜 짐의 뜻에 副應하도록 하라.”⁴⁾

명나라 초기에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사절에는 황제를 측근에서 모시는 태감 출신들이 많았다. 이번 사행에도 태감 출신인 황엄이 수장을 맡았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황엄의 등장은 조선 건국초인 1394년(태조 3; 홍무 27)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하거나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양국의 외교 현안들을 맡아 처리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황엄은 외교상의 결례를 자주 범하고 사리사욕에 탐하는 행위가 많아 조선 조정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이번 명나라 황엄 일행이 처리할 외교 현안에는 한반도로 피난해갔던 명나라 사람들을 推刷하고 建州衛指揮 猛哥帖木兒의 가족들을 보내 달라는 통상적인 사항 외에 아주 특별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었다. 즉, 영락제가 先皇考와 先皇妃의 명복을 기리는 제전을 거행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모시고 있는 동불 몇 좌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世安建築事務所,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 pp.29-31; 金東俊,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耽羅文化』 20, 耽羅文化研究所: 1999.12), pp.111-116; 이재룡, 「조선 초기의 대명관계와 제주 범화사의 동불」(『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건설에 따른 범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장보고 선단과 제주범화사』, 제2회 범화사지 학술대회, 제주불교사회문화원, 2000.02.26), pp.27-35.

4) 『太宗實錄』(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본) 권11, 태종 6년 4월 19일(기묘)조: “朝廷內使黃儼·楊寧·韓帖木兒·尙寶司尙寶奇原等至, 結山棚儼禮, 上以時服, 率百官出盤松亭, 陳百戲, 迎至景福宮. 勅曰: “朕重惟先皇考·皇妃恩德, 欲學薦揚之典, 特遣司禮監太監黃儼等, 往爾國及耽羅, 求銅佛像數座, 尙相成之, 以副朕意.”

여기의 先皇考는 홍무제를, 先皇妃는 馬皇后를 각각 지칭한다.

이번 사행에 동행한 韓帖木兒는 조선 태종에게 제주도 동불이 법화사 阿彌陀三尊佛像이고, 이 불상은 원나라 때 뛰어난 장인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⁵⁾ 한첩목아는 조선 출신의 태감이다. 이러한 소이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첩목아는 불상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불상의 종류와 재료, 제작자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이처럼 영락제는 사전에 법화사 삼존불상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조선 태종은 이번 황엄 일행의 내방에 대해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태종은 한첩목아에게 그대들이 제주도에 들어가는 뜻은 가상하나, 그러다가 부처 귀에 물이 들어갈까 염려된다고 희롱하며 싫어하는 뜻을 내비쳤다.⁶⁾ 태종은 황엄 일행이 법화사 삼존 불상을 가져가는 목적은 단순하게 영락제가 홍무제와 마황후를 기리는 불사 외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영락제는 황엄 일행에게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법화사 삼존불상을 가져오라고 했다. 황엄 일행이 불상을 취하려 제주도에 간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남쪽과 제주도의 형세를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본래 고려의 영토였지만, 원나라 간섭시기에 미묘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고려에서 목사를 파견하여 다스렸지만, 원나라도 耽羅總管府를 설치하여 達魯花赤와 牧子들을 파견했다. 麗元 연합군이 일본열도를 침공할 때 제주도는 군사와 물자를 준비하는 전초기지로 활용되었고, 원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원나라는 제주도를 마지막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훗날 고려는 군사들을 파견하여 제주도에 남아있던 원나라 잔당들을 제거하였다. 명나라는 고려와 국교를 수립한 후, 한때 제주도 목마장을 관장하고 원나라 황실의 棲住地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만두었다. 명나라는 조선과

5)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20일(경진)조: “帖木兒曰: 濟州法華寺彌陀三尊, 元朝時良工所鑄也.”

6)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20일(경진)조: “某(韓帖木兒)等當徑往取之. 上戲曰: 固當, 但恐水入耳. 帖木兒等皆大笑.”

의 수교한 후에도 이러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⁷⁾

조선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황엄 일행의 제주도 방문을 경계했다. 태종은 조정 중신들과 함께 황엄 일행이 제주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그 대책 방안은 이들이 제주도 해협을 건너기 직전에 법화사 삼존불상을 육지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태종은 급히 朴謨와 金道生을 제주도에 보내어 법화사 삼존불상을 가져오게 명했다.⁸⁾ 전라도관찰사 朴崑은 제주목사에게 移文을 보내어 불상 이송작업을 준비하도록 했다. 제주목사는 즉시 군졸들을 시켜 법화사 삼존불상을 바닷가로 운반해왔고, 이튿날 朴謨 일행도 제주도에 도달했다. 제주도에서의 선박 출항은 순풍이 불지 않고 물때가 맞지 않아 상당 기일 지체되었으나,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뱃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출항시켜 겨우 전라도 해남 땅에 도달할 수 있었다.⁹⁾

이해 4월 25일에 황엄 일행은 서울을 떠나 남하했다. 이들은 떠나는 날에 태종의 전송이 없다는 것을 트집 삼아 외교적인 무례를 범했다.¹⁰⁾ 황엄이 珍原縣을 지날 때 百枝樹라는 큰 나무에 몰래 銅釘을 박아놓았다.¹¹⁾ 또 이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성대한 대접을 요구하며 지방

7) 世安建築事務所編,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 pp.28-29; 이재룡, 「조선 초기의 대명관계와 제주 법화사의 동불」, pp.28-30; 金日宇,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韓國史研究』 119, 韓國史研究會, 2002.12), pp.29-56.

8)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20일(경진)조: “儼等欲親至濟州, 迎銅佛像. 或曰: 帝使儼等觀耽羅形勢, 意有所在. 上憂之, 謀諸群臣, 急遣宣差金道生·司直朴謨, 馳往濟州, 以法華寺銅佛像來. 蓋謂若佛像先至羅州, 則儼等不必入濟州也.”

9)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16일(계묘)조: “國家遣朴謨·金道生等, 取銅佛於濟州, 臣卽先移文濟州牧官, 法華寺銅佛三坐, 作急輸出, 載船送來. 濟州官見臣移文, 卽發吏卒, 輸其銅佛, 將至海濱. 翌日, 朴謨等繼至, 會有快風, 卽得押載出來, 纔到岸, 風水不順, 幾乎數旬. 蓋取佛之事, 自有委來者, 而臣不顧一身利害, 先遣舟人, 俾輸佛.”

10)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25일(을유)조: “黃儼等如全羅道, 獨奇原留. 以知議政府事朴錫命, 爲金羅道(全羅道の 오류)濟州都體察使以伴行. 命知中事黃喜, 與議政府錢之于漢江, 儼晨興策馬而行, 喜等不及見而還. 蓋儼 怒上之不出錢也.”

11)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16일(계묘)조: “珍原縣道旁有大樹, 俗號百枝

관아에게 적지 않는 폐해를 끼쳤다. 황엄은 나주에 머물 동안 촌블이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가했다. 하지만 훗날 태종은 박은이 황엄의 지나친 요구를 물리친 것에 대해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며 사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가했고,¹²⁾ 또朴謨와金道生이 불상의 빠른 운송에 공이 크다며 각각護軍과通禮門奉禮郎으로 승진시켰다.¹³⁾

어쨌든 간에 조선 조정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이루어졌다. 황엄 일행은 나주에서 법화사 삼존불상을 맞이하고 서울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조정의 신속한 대응과 황엄 일행의 남하를 조직적으로 지체시켰던 것도 있었지만, 황엄이 남하 도중에 부상을 입었던 것도 한 몫을 차지했다. 황엄이 남원 勝蓮寺를 유람하다가 말에서 낙상하여 왼팔을 다쳐 한동안 요양했다.¹⁴⁾

황엄 일행은 나주에서 법화사 삼존불상을 맞이하여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이 일에 대하여 『태종실록』 태종 6년 7월 16일(계묘) 일조에서 촌블이 올린 기록에 자세히 적혀 있다.

황엄 등은 銅佛像 3座를 받들고 왔는데, 감실 15개를 사용하여 佛像·火光·蓮臺·坐具를 나누어 담았고, 또 모란·작약·黃葵 등의 특수한 꽃을 감실에다 흙을 담아 심고 궤를 만들었는데, 판자 1천 장, 철 6백 근, 마 7백 근을 사용하였다. 그 불상과 화광의 감실이 셋인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7척쯤이며, 안에는 막이로 白紙 2만 8천 장과 면화 2백 근을 사용하였다.¹⁵⁾

樹. 黃嚴過之, 密用銅釘釘之, 監務 許揆知之, 拔其釘以聞. 時人頗疑嚴爲壓勝之術也.”

12)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16일(계묘)조: “全羅道都觀察使朴崑, 每事裁減, 忠淸道都觀察使成石珣, 一如其意. 嚴怒崑而喜石因. 及還, 爲上言: 監司之不負殿下者, 惟朴崑耳.”

13)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6월 27일(을유)조: “以朴謨爲護軍, 金道生通禮門奉禮郎. 謨等自發漢京至濟州, 載銅佛三軀, 回泊海南縣凡十七日, 故賞其速也.”

14)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5월 9일(무술)조: “遣參贊議政府事辛克禮, 齎宮醞往問黃嚴之疾. 上聞嚴至南原遊 勝蓮寺, 墮馬傷左臂也.” 또 태종 6년 5월 12일(신축)조: “遣右代言尹思修·檢校漢城尹楊弘達, 齎藥餌及宮醞, 問黃嚴之疾.”

15)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16일(계묘)조: “嚴等奉銅佛像三座來, 用龕十五, 分盛佛像, 火光蓮臺坐具, 且將牧丹芍藥黃葵等異花, 盛土於龕而種之. 作櫃用

황엄 일행은 제주도 법화사에서 가져온 삼존불상과 부속 佛具를 감실 15개로 나누어 담고, 감실 안에 흙을 집어넣고 모란, 작약, 黃葵(해바라기) 등을 심어 아름답게 꾸몄다. 불상과 화광을 담은 감실은 3개이고, 각 감실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7척이다. 감실 안에 꾸민 꽃들은 황엄의 강요로 인하여 꾸민 것이었다.朴씨는 이들이 감실에 꽃들을 꾸미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였으나 금하지 못했다. 각 감실 안에 백지 2만 8천장과 면화 2백 근을 사용하여 불상과 佛具들이 움직여 파손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인지 전체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아가 백성들과 승려들이 옮기는데 큰 폐해가 되었다. 당시 이를 옮기는 집꾼의 숫자가 수천 여명에 달하였다. 황엄 일행이 삼존불상을 옮기는 지역마다 매양 관사가 좁고 더럽다하여 관사 왼쪽에 따로 청사를 짓게 하고 또한 많은 물자들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면 수령을 욕보이게 하였고, 집꾼들을 매질하여 심지어는 치사시키기도 했다.

황엄 일행은 법화사 삼존불상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태종은 신하들을 보내어 불상을 맞이했다. 이때 황엄은 태종이 직접 불상에게 五拜三叩頭를 행할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태종은 이러한 행위가 외교적인 결례이고 황엄의 인물됨이 탐람하고 간험하며, 또 불상을 수송하는 과정에 사람을 때려 죽었다며 거절했다. 황엄 일행은 議政府에서 마련한 하마연을 물리치는 등 긴장 상태를 조성했다.¹⁶⁾ 그러나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이해 7월 22일에 황엄 일행은 법화사 삼존

板千葉鐵六百斤麻七千斤. 其佛像火光之龕三, 崇廣各七尺許, 內用隔白紙二萬八千張, 縣花二百斤.”

16)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16일(계묘)조: “黃嚴·韓帖木兒·楊寧·奇原自羅州. 初, 嚴等還至龍駒縣, 上遑豫未能出迎, 遣吏曹判書李稷告之, 故嚴望見, 以爲政丞來, 及見稷, 色有不豫. 稷知之, 諛曰: 今日兩政丞, 皆值家忌, 未能趨造, 明朝當來迎矣. 李文和亦使人啓曰: 嚴聞殿下不郊迎, 殊有不豫色. 且嚴等欲殿下迎銅佛, 五拜三叩頭. 上怒曰: 黃嚴何辱我至此. 嚴貪婪姦險, 且以輸佛像之故, 毆殺人命, 其罪亦重. 予欲以此奏于天子. ……及至館, 百官欲行禮, 嚴怒上之不出, 乃曰: 今未見殿下, 不敢受禮.” 政府欲代設下馬宴, 亦不受.”

불상을 받들고 서울을 떠나 남경으로 향했다. 태종은 趙勉을 황업 일행에 따라 보내며 명나라 예부에 咨文을 전하고 법화사 삼존불상을 보냈다는 뜻을 전했다.¹⁷⁾ 이해 9월 20일에 영락제가 조면 등 외국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¹⁸⁾ 이해 12월에 명나라 영락제는 韓帖木兒, 楊寧 등을 파견하여 법화사 삼존불상을 보내주었다는 감사의 답례로 서적, 약재, 비단 등을 보내왔다.¹⁹⁾

Ⅲ. 大報恩寺의 연혁과 명 永樂帝의 증건

대보은사는 남경성 聚寶門 남쪽 1리 長干里에 자리잡았다. 干은 江東 사람들이 산언덕을 지칭하는 토속어이다.²⁰⁾ 산언덕은 雨華臺에서 秦淮河까지 기다랗게 뻗어있다. 聚寶門은 민국 시대에 中華門으로 개칭했다. 중화문 남쪽에서 長干橋를 지나면 雨華路이고, 우화로 동편과 掃帚巷 남쪽에 걸쳐있는 일대가 바로 대보은사터이다. 명청 시대의 대보은사는 남쪽으로 雨花臺, 북쪽으로 秦淮河, 동쪽으로 명 魏國公墓(현 晨光集團 건물), 서쪽으로 聚寶街(현 우화로)까지 미쳤으며, 전체 둘레가 9리 13보나 된다. 중화문 위에서 바라보면 대보은사터의 전모가 잘 보인다.

17)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22일(기유)조: “黃儼等奉銅佛三座還京師, 上餞之于盤松亭, 遣右軍摠制趙勉, 隨赴京師, 咨禮部以送銅佛之意.”

18) 『明太宗實錄』 권59, 영락 4년 9월 20일(병자)조: “賜朝鮮國陪臣趙勉, 非及別失里, 暹羅諸國朝使宴.”(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판, 1964.4), p.860.

19)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2일(정미)조: “朝廷內史韓帖木兒·楊寧等來. ……帖木兒宣勅, 賜王珊瑚間茄藍香帽珠一串, 紵絲三十四匹, 熟絹三十四匹, 象牙二隻, 犀角二箇, 『通鑑綱目』, 『漢準』, 『四書衍義』, 『大學衍義』各一部, 片腦, 沈香, 束香, 檀香, 蘇合油, 白花蛇, 朱砂, 麝香, 附子, 金櫻子, 肉蓯蓉, 巴戟, 當歸, 乳香, 沒藥, 藿香, 零陵香, 甘松香等藥材十八味. 帝喜我進銅佛, 故有是賜.”

20) 彭大翼 『山堂肆考』 권174 「宮室·僧寺·長刊」: “按聚寶門外長干, 地名有大長干·小長干, 寺在其中也. 江東人謂山隴之間曰干.”(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文淵閣四庫全書』, 1판, 1990), 冊977, pp.499-500.

대보은사의 사찰 역사는 오래되었다. 사찰 역사에 관해 張惠衣의 『金陵大報恩寺塔志』, 葛寅亮의 『金陵梵刹志』, 張惠衣의 『金陵大報恩寺塔志』, 祁海寧·龔巨平的 『南京大報恩寺史話』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²¹⁾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7년(오 赤烏 10)에 孫權은 康僧會가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를 받들어 建初寺와 阿育王塔이 세웠다. 건초사는 중국 남방에 첫 번째로 세워진 사찰이었다. 동진 咸和 연간(326-334) 蘇峻의 난 때 건초사와 아육왕탑이 불타버리자, 동진 조정은 사찰을 중건하고 長干寺로 개명했다. 아육왕탑은 동진 咸安 연간(371-372)에 이르러 다른 자리로 옮겨 중건되었다. 寧康 연간(373-375)에 慧達이 옛 아육왕탑 터에서 진신사리를 발견하자 이 자리에 탑을 세우고 여전히 아육왕탑이라고 불렀다. 537년(양 大同 3)에 장간사를 확충하고 아육왕탑을 보수했다. 이때 나온 전돌의 명문 사진이 張惠衣의 『金陵大報恩寺塔志』에 수록되어있다.²²⁾

수당 시대에 들어서서 장간사와 아육왕탑은 완전 훼멸까지는 이루지 않았으나 몹시 황폐해졌다. 824년(당 長慶 4)에 李德裕는 아육왕탑에 묻어둔 21개 진신사리를 발견하고, 그 중 11개를 潤州(현 鎮江) 北固山 甘露寺로 옮겨 보관했다. 1018년(북송 天禧 2)에 사찰을 중수하고, 구층 불탑을 중건했다. 사찰명은 天禧寺, 탑명을 聖感舍利塔으로 각각 개칭했다. 원 至元 연간(1264-1294)에 쿠빌라이가 江寧 旌忠寺를 몰수하여 친희사의 下院으로 삼았고, 곧이어 친희사를 元興天禧慈恩旌忠寺로 개칭했다. 원나라 말기에 전란 중에 친희사는 불타버렸으나, 성감사리탑은 온전했다.

洪武帝(朱元璋)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남경을 수도로 정했다. 홍무제는 胡惟庸 사건을 빌미로 개국공신들을 대거 제거하는 옥사를 일으키

21) 張惠衣, 『金陵大報恩寺塔志』(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6.8) 권1 「紀載」, pp.22-30; 葛寅亮, 『金陵梵刹志』(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권31 「聚寶山報恩寺」, pp.459-493; 祁海寧·龔巨平, 『南京大報恩寺史話』(南京: 南京出版社, 2008) 「史地篇」, pp.2-14.

22) 張惠衣, 「說明: 梁長干寺如來舍利塔碑」(『金陵大報恩寺塔志』(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6.8), p.18.

고, 신하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성감사리탑이 남경의 풍수지리에 좋지 않다며 탑을 해체하여 鍾山으로 옮기도록 명했다. 이때 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탑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무제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여기고 천희사를 중건하고 탑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사찰 중건 작업은 홍무 15년(1382)부터 시작하여 황금 2만 5천냥을 들여 3년이라는 세월을 걸려 완공했다. 홍무제는 사찰이 중건되자 친히 어제문을 짓고 대규모 법회를 열었다.

1392년(홍무 25)에 적장손 懿文皇太子(朱標)가 서거했다. 홍무제는 후계로 한때 영락제(당시 燕王)를 생각했다가, 결국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 建文帝(朱允炆)를 세웠다. 1398년(홍무 31)에 건문제가 즉위하자 변왕의 권력을 삭감하려는 정책을 벌였다. 이듬해(1399)에 영락제는 靖難의 변을 일으켰다. 1402년(建文 4)에 영락제는 남경성을 점령하여 조카 건문제를 축출하고 황위에 올랐다.

영락제는 즉위 초기부터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건문제 측근과 정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다른 변왕들의 권력을 대폭 축소시켰다. 지난 건문제의 역사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 홍무 연호를 1402년(건문 4)까지 연장시키려는 명령까지 내렸다. 또 이 작업의 일환으로 천희사를 보수했다. 천희사는 일전에 홍무제가 대규모 역사를 통해 중건한 수도 남경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영락제가 천희사를 다시 보수하는 것은 홍무제를 전면으로 내세워 자신의 황위가 정통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1408년(영락 6)에 천희사는 완전 소실되는 대참사를 맞이했다. 곧이어 영락제는 천희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가 천희사의 소실과 모습, 대보은사의 중건과 寺名 변경을 알려주는 글이 『金陵梵刹志』 권 31 「聚寶山報恩寺」 중 「重脩報恩寺勅」에 남아있다.

짐이 즉위한 초기에 드디어 工部에게 칙령을 내려 수리하여 예전에 비해 새로워졌다. 근자에 無籍僧 本性이 사사로운 분함으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을 품고 승방에 잠입해 방화하여 사찰을 불태웠다. 높은 전각과 다듬은 행랑은 나무 조각도 남기지 않았고, 황금의 땅은 모두 기와와 자갈이 되었다. 부도가 불에 타서 갈라지고 무너져서 험하게 기울어졌으며, 주위를 돌아보아도 빈 언덕과 초아뿐이었다. 짐이 皇考와 皇妣의 망극한 은혜를 생각하면 보답할 길이 없는데, 하물며 영적에 있어 어찌 끝내 황폐시킬 것인가? 그래서 군민들을 동원하니 힘껏 일하고 공사에 앞장서는 자들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 하여 그 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한번 새롭게 창건하여 전각을 확충하니 예전에 비하여 공력이 만 배나 들어 이로써 성대하게 되었다. 위로 하늘에 계신 父皇과 皇후의 신령을 제도하고 아래로 천하 생민의 기복을 위함이었다. 비 오고 해 나는 것을 때에 맞아 백곡이 풍부하게 수확하여 가정과 사람에게 족히 공급되며, 요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재난과 악기가 없도다. 이에 이름을 대보은사라 짓는다.²³⁾

이 칙령은 1413년(영락 11)에 나왔다. 천희사의 소실은 뜻밖에도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왔다. 無籍僧 本性이 의도적으로 사찰에 잠입하여 방화하니 온갖 건물에 불타 극심한 피해를 입어 사찰 경내가 완전 폐허화되었다. 곧이어 영락제는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천희사를 다시 세우기로 정했다. 이번 중건 작업은 단순히 예전의 사찰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찰의 크기와 규모를 크게 확충시키고 건물의 모습과 장식을 궁궐에 준하여 건설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도록 했다. 그가 이처럼 사찰 중건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목적에는 사찰을 복원한다는 대외적인 선전도 있었겠지만,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자신의 출생에 따르는 비밀과 정치 안정을 공고하게 다지려는 숨은 의도도 깔려 있었다. 이때 사찰 명칭은 대보은사로 개칭되었다. 대보은사, 즉 커다란

23) 『金陵梵刹志』 권31 「聚寶山報恩寺」 중 「重脩報恩寺勅」: “朕卽位之初, 遂勅工部修理, 比舊加新, 比年有無籍僧本性, 以其私憤, 懷殺人之心, 潛於僧室放火, 將寺焚毀, 崇殿修廊, 村木不存, 黃金之地, 悉爲瓦礫, 浮圖燬燼, 頽裂傾敝, 周覽顧望, 丘墟草野. 朕念皇考、皇妣罔極之恩, 無以報稱, 況此靈跡, 豈可終廢? 乃用軍民人等, 勤勞其力, 趨事赴工者, 如水之流下, 其勢莫禦, 一新搆建, 充廣殿宇, 比之于舊, 功力萬倍, 以此勝因. 上荐父皇母后在天之靈, 下爲天下生民祈福, 使雨暘時若, 百穀豐登, 家給人足, 妖孽不興, 災沴不作, 乃名大報恩寺.”(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판, 2007). p.465.

은덕을 갚는다는 뜻을 지닌 사찰 명칭에서 보듯이 사실상 황실 개인의 원찰임을 말해주고 있다. 칙령에는 생민들의 기복을 원한다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공포에 불과하다.

사찰 건물 제도는 궁궐 제도에 준하였다. 正殿만 하더라도 길이가 16丈 7尺 5寸(53.1m)이고, 너비가 11丈 4尺 3寸(36.23m)이며, 높이가 7丈 1尺 5寸(오늘날 도량으로 22.67m)이다. 이 정도의 규모는 북경 故宮 太和殿에 거의 비견하고 있다. 사찰의 전체 면적도 4백여 畝로 크게 확충시키고, 사찰 북쪽에 九級八面의 琉璃寶塔을 중건했다. 유리보탑의 높이는 24丈 6尺 1寸(78.02m)이다. 이 탑은 영락제로부터 第一塔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훗날 남경을 방문한 서양인들로부터 남경을 상징하는 표지탑으로 여겨왔다. 여기의 유리는 흙으로 빚은 재료에 유약을 칠해 다시 구어 유리처럼 빛나게 만든 것을 지칭한다. 1958년에 대보은사와 멀지 않은 窯崗村과 眼香廟 일대에서 당시 유리 건축자재를 굽던 琉璃窯 遺址와 대량의 유리 건축자재가 발견되었다. 남경시박물관은 이곳에서 발굴한 자재 琉璃拱門을 전시하고 있다. 중건 작업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영락제 재위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1428년(宣德 3) 손자 宣德帝에 이르러서야 완성할 수 있었다.

명 葛寅亮이 편찬한 『金陵梵刹志』에는 명나라 중엽에 대보은사의 모습을 담은 전경 도면이 있다.²⁴⁾ 청 강희 연간에 사찰 보수가 이루어졌다. 1856년(咸豐 6)에 남경을 점령한 太平天國이 天京의 변을 일으켰다. 태평군 韋昌輝가 청나라 군대로부터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성밖에 있는 유리보탑을 폭약과 대포로 파괴시켰다. 1865년(同治 4)에 李鴻章이 폐허화된 대보은사터에 金陵機器製造局을 세웠다. 훗날 공장 명칭은 金陵兵工廠, 60兵工廠, 華東軍械總廠, 南京晨光機器廠 등 여러 차례 바뀌었다. 또 공장 주변의 남은 사찰터에는 각종 민가들이 들어섰다.²⁵⁾

24) 葛寅亮, 『金陵梵刹志』(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권31, 「聚寶山報恩寺」, p.459 앞 간지.

25) 「丙辰劫難, 寶塔悲歌」, 「廢墟上站起的金陵機器製造局」(『南京大報恩寺史話』, 南京: 南京出版社, 1998). pp.141-150.



대보은사 발굴 현장(필자)

1937년에 편찬한 『金陵大報恩寺塔志』에는 유리보탑의 꼭대기에 동으로 만들었던 塔頂盤을 비롯한 유적 사진들이 수록되어있다.²⁶⁾ 1992년 3월에 南京市에서 대보은사터를 市級文物保護單位로 지정했고, 2001년에 남경시 유관기관에서 研討會를 열어 사찰 복원에 나섰다. 2006년에 남경시는 金陵大報恩寺琉璃塔及遺址工程을 제정하여 복원 사업에 착수했고, 2007년에 사찰터에 자리잡았던 각종 건물(단, 晨光集團 소속 건물은 제외)들을 철거했다. 이해 南京市 考古隊를 조직하여 正殿와 塔址를 중심으로 유적 발굴에 나서 현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²⁷⁾ 앞으로 머지 않는 장래에 대보은사가 복원될 것으로 믿어진다.

26) 張惠衣, 『金陵大報恩寺塔志』(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판, 1996.8), pp.13-21.

27) 『盛世終圓百年夢』(『南京大報恩寺史話』, 南京: 南京出版社, 1판, 2008), pp.156-161.

IV. 法華寺 三尊佛像을 가져간 명 永樂帝의 목적

명 영락제가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을 가져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조선 조정은 명나라가 의도하는 것이 삼존불상이 아니고, 이를 구실로 삼아 제주도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간계로 생각하고 있었다. 태종은 조정 중신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명나라 태감들이 제주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관리들을 제주도에 보내 불상을 육지로 가져오게 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국제 정세가 매우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조정의 판단이 결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선행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견해에 찬동하고 있다.

그런데, 명 영락제가 이러한 목적 외에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동기에는 명 영락제의 출생 비밀과 관련이 있다. 영락제의 출생 비밀은 한마디로 수수께끼이다. 영락제의 생모에 대해 학계에서는 크게 4가지 설이 들고 있다.

첫째, 마황후설이다. 마황후는 아들 5명을 낳았는데, 장자는 태자(朱標), 차자는 秦王(朱棧), 삼자는 晉王(朱桐), 오자는 周王(朱橚)이고, 사자는 영락제이다. 앞서 칙령에서 보듯이 영락제 자신이 말한 것이고, 正史에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둘째, 達妃說이다. 영락제는 달비가 낳은 아들이고, 태자, 秦王, 晉王, 周王은 마황후가 낳은 자식이다. 셋째, 몽골 洪吉喇(翁吉刺)說이다. 홍길라는 원래 원나라 순제의 제3 福晉이다. 홍무제가 전쟁 포로로 잡힌 洪吉喇를 취했다. 당시 임신 중인 홍길라는 영락제를 낳았다. 명나라 제도에 입궁 전에 임신한 여자는 극형에 취하는 제도에 따라 홍길라가 죽자, 마황후가 영락제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넷째, 고려 碩妃說이다. 공비가 영락제를 낳았다. 홍길라의 경우처럼 공비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마황후가 영락제를 자기 소생의 아들로 삼았다.²⁸⁾

이상 네 가지 설 가운데 학계에서는 공비설을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명 張岱는 1642년(壬午年; 송정 15) 7월에 太常寺主簿 朱兆宣를 따라 남경 鍾山에 소재한 명 효릉의 전각들을 둘러볼 기회를 잡았다. 그는 전각에서 공비 神座를 보고, 공비가 成祖(영락제)를 낳았고 孝慈皇后(마황후)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기록을 남겼다.²⁹⁾ 張岱는 『石匱書』에서도 영락제의 모친은 공비라고 적었다.³⁰⁾

명 李清은 『三垣筆記』에서 영락제가 공비가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헌 기록과 현장 답사 기록을 남겨놓았다. 그는 『南京太常寺志』를 보니 영락제(長陵)가 공비의 소생이고, 태자·秦王·晉王은 李淑妃의 소생이라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이 기록이 『실록』 기록과 다르다며 錢謙益에게 질의를 했으나, 이때 전겸익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45년(명 弘光 1) 元旦에 전겸익이 명 효릉에 제례를 지내는 기회를 잡게 되자, 효릉 寢殿의 神位를 조사해달라는 이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장 답사를 하니 『남경태상사지』의 기록처럼 신위가 놓여져 있고, 영락제가 공비의 소생임을 알았다.³¹⁾ 南京 太常寺는 명 효릉의 제례를 주관한 부처이며, 『남경태상사지』는 1623년(天啓 3) 沈若

28) 『報誰之恩』(『南京大報恩寺史話』, 南京: 南京出版社, 1판, 2008.7), p.39.

29) 張岱著, 王文誥 編, 『陶菴夢憶』 권1 「鍾山」: “壬午七月, 朱兆宣薄太常, 中元祭期, 岱觀之. 饗殿深穆, ……近閣下一座稍前爲碩妃, 是成祖生母. 成祖生, 孝慈皇后祔爲己子, 事甚秘.”(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修四庫全書』, 1판, 1995), 冊1260, p.1260.

30) 張岱 『石匱書』 권3 「成祖本紀」: “文皇帝, 太祖第四子也. 母曰碩妃, 高皇后祔爲己子.”(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修四庫全書』, 1판, 1995), 冊318, p.36.

31) 李清, 『三垣筆記』 「附誌二條」: “予閱『南太常寺誌』, 載懿文皇太子及秦·晉二王, 均李妃生, 成祖則碩妃生, 訝之. 時錢宗伯謙益有博物稱, 亦不能決. 後以弘光元旦謁孝陵, 予與謙益曰: “此事與『實錄』·『玉牒』左, 何微? 但本誌所載, 東側列妃嬪二十餘, 而西側止碩妃, 然否? 曷不啓寢殿驗之?” 及入視, 果然. 乃知李碩之言有以也.”(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修四庫全書』, 1판, 1995), 冊440, p.674.

霖이 편찬했다. 이 책자에 기술된 명효릉 享殿의 비빈 신위를 보면 좌측에는 여러 비빈과 제왕을 3열로 나누어 배열해놓았고, 우측에는 공비 1명만 배열해놓고 成祖文皇帝(영락제)를 낳았다고 했다.³²⁾

칭 談遷은 『棗林雜俎』에서 『南京太常寺志』의 기록을 근거로 영락제(長陵)는 공비의 소생이고, 태자·秦王·晉王은 李淑妃의 소생이라고 밝혔다.³³⁾ 담천은 『國權』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밝혔다.³⁴⁾ 朱彝尊은 명 孝陵(홍무제) 전각의 신위 배열에서 좌측에는 왕자와 비 5명을 모셨고, 우측에는 공비 1명만 모셨다는 『南京太常寺志』의 기록을 친히 확인하고 담천의 언급이 옳다고 했다.³⁵⁾ 칭 屈大均의 『讀禮通考』와 칭 潘耒의 『國史考異』도 각각 『남경태상사지』를 인용하여 영락제는 공비의 소생이라는 사실에 대해 찬동했다.³⁶⁾ 민국 초에 傅斯年과 朱希祖 사이에 영락제의 생모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으나, 당시 李晉華, 吳晗 등 학자들은 모두 부사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³⁷⁾

32) 王煥鑣, 『明孝陵志』, pp.28-29.

33) 談遷, 『棗林雜俎』『義集·彤管·孝慈高皇后無子』: “孝陵享殿, 太祖高皇帝·高皇后南向. 左淑妃李氏, 生懿文皇帝太子·秦愍王·晉恭王, ……碩妃生成祖文皇帝, 獨西列, 見『南京太常寺志』.”(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修四庫全書』, 1판, 1995), 冊1135, p.3.

34) 談遷, 『國權』 제12 영락 원년조(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修四庫全書』, 1판, 1995), 冊358, p.580 참조.

35) 朱彝尊, 『曝書亭集』 권44 「南京太常寺志跋」: “囊海寧談遷孺木館于膠州高閣老弘圖邸舍, 閱老導之, 借故冊府書, 縱觀因成權一部, 掇其遺爲『棗林雜俎』, 中述孝慈高皇后無子, 不獨長陵爲高麗石貢妃所生, 而懿文太子及秦·晉二王, 皆李淑妃產也. 聞者爭以爲駭. 史局初設, 彝尊嘗以是質諸總裁前輩, 總裁謂宜仍實錄之舊. 今觀天啓三年『南京太常寺志』, 大書孝陵殿宇中設高皇帝后主, 左配生子·妃五人, 右祇碩妃一人. 事足徵信, 然則實錄出于史臣之曲筆, 不足從也. 漢之文帝, 自言朕高皇帝側室之子, 于義何傷, 而奉天靖難記每載長陵上闕下書及宣諭臣民曰: 朕太祖高皇帝·孝慈高皇后嫡子, 考妣必並舉壺漿, 欲掩而迹反露矣. 志, 凡四十卷, 嘉善沈若霖編.”(上海, 商務印書館, 『四部叢刊初編』, 1판, 1936), pp.365-366.

36) 王煥鑣, 『明孝陵志』(『明孝陵志』, 南京: 南京出版社, 1판, 2006.9), pp.29-30.

37) 傅斯年, 「明成祖生母記疑」(『歷史語言研究所集刊』 2-4); 「跋[明成祖生母問題彙證]并答朱希祖先生」(『歷史語言研究所集刊』 6-2); 朱希祖, 「明[成祖生母記疑]辨」(『中山大學文史月刊』 201); 李晉華, 「明成祖生母問題彙證」(『歷史語言研究所集刊』 6-2); 吳晗, 「明成祖生母考」(『清華學報』 10-3) 참조.

흥미롭게도 공비가 영락제 생모였다는 사실을 보완해 줄 또 하나의 방증 자료가 있다. 즉, 영락제가 생모 공비를 대보은사 正殿에 모셨다는 사실이다. 청 陳作霖은 『養齋軒隨筆』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성 남쪽의 대보은사에 놀러가니 정문 내의 大殿은 잠겨놓고 열여놓지 않았다. 父老에게 물으니, 이는 成祖(영락제)의 모친인 공(石+貢)妃殿이다. 비는 본래 고려 사람이다. 燕王(영락제)를 낳았고, 高皇后(마황후)가 자식을 삼았다. 마침내 비는 鐵裙의 형을 받아 죽었다. 그러므로 영락연간에 사찰과 탑을 세워 모친의 은혜를 보답했다. 사서의 기록과 전부 맞지 않아 터무니없는 말이라 의심했다. 훗날 竹垞 朱彝尊 「跋南京太常寺志」를 읽으니 “長陵(영락제)은 공비가 낳은 자식이다. 談遷의 『棗林雜俎』에 보이는데, 이 가운데 孝慈高皇后(마황후)는 아들이 없었고, 懿文太子과 秦王, 晉王은 또한 李淑妃가 낳았다”고 기술했다. 항간에 떠도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님에 탄식했다.³⁸⁾

진작림은 어렸을 때 남경에서 성장하며 대보은사를 드나들었다. 대보은사의 정전은 문이 항상 닫혀있었는데, 노인네들로부터 정전의 유래에 대해 전해 들었다. 대보은사는 영락제가 생모 공비를 위해 만들었고, 대보은사의 정전에는 공비를 모셨다고 했다. 진작림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談遷과 朱彝尊의 기록을 보고 나서야 이 사실이 맞다고 여겼다. 張惠衣는 『金陵大報恩寺塔志』에서 대보은사 정전은 碩妃殿이며, 禮部의 제사가 아니면 일년 내내 문이 닫혀있다고 했다.³⁹⁾ 오늘날 남경문물 관계학자들은 대보은사가 공비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원찰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⁴⁰⁾

38) 陳作霖, 『養齋軒隨筆』: “予幼時遊南城大報恩寺, 見正門內大殿封閉不開, 問諸父老云: 此成祖生母碩妃殿也. 妃本高麗人, 生燕王, 高后養以爲子, 遂賜妃死, 有鐵裙之刑. 故永樂間建寺塔以報母恩, 與史志所載皆不合, 疑爲譌言. 後閱朱竹垞「跋南京太常寺志」, 云: 長陵係碩妃所生, 見於談遷『棗林雜俎』. 中述孝慈高皇后無子, 卽懿文太子及秦、晉二王, 亦李淑妃產也. 乃歎齊東之語, 不盡無稽也.”(北京: 中華書局, 『叢書集成初編』, 1판, 1985), 冊368, p.22.

39) 張惠衣, 「說明: 大報恩寺全圖」(『金陵大報恩寺塔志』, 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판, 1996.8), p.11.

그렇다면 영락제가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을 구하는 것이 생모 공비의 출신 국가와 관련이 없을까? 영락제는 대보은사를 중건함에 있어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홍무제와 마황후를 내세워 자신 권력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고, 대내적으로 암암리에 자신 생모의 명복을 기리는 신단 장소로 활용했다. 생모 공비는 고려인이다. 영락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소재의 불상이 생모의 명복을 기리는데 더욱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현재로선 공비의 생애에 대해 사료 부족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소한 공비에게는 한반도에 기반을 둔 집안이 있음이 분명하다. 공비 또는 공비 집안이 혹시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과 모종의 관계가 없는지가 내심 궁금해진다.

여기에 또 하나 고려해봐야 할 자료가 있다. 1407년(태종 7; 영락 5) 5월 14일에 태종은 영락제가 황엄과 奇原을 보내어 조선의 사리를 구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리들을 각도의 사찰에 보내어 사리를 구하도록 했다.⁴¹⁾ 5월 18일에 명 사신 황엄이 영락제가 사리를 구한다는 칙서를 가지고 왔다.⁴²⁾ 5월 20일에 太上王(李成桂)이 황엄에게 사리 303개를 건네주었고,⁴³⁾ 6월 6일에 태종이 황엄에게 태상왕이 일전에 준 것을 포함하여 사리 8백 개를 건네주었다.⁴⁴⁾ 영락제는 조선에 사신

40) 吳蘭芳, 『明朝報恩寺琉璃塔』(『南京的文物』, 南京: 南京出版社, 1판, 1995.8), p.69; 祁海寧, 龔巨平, 『南京大報恩寺史話』(南京: 南京出版社, 1판, 2008.7), pp.38-41; 夏愛軍, 『明孝陵: 人物卷』(南京: 東南大學出版社, 1판, 2008.3), pp.114-115.

41) 『태종실록』 권13, 7년 5월 14일(정묘)조: “分遣朝臣, 求舍利于各道寺社. 忠清道司宰少監韓有紋, 慶尙道前佐郎 河之混, 全羅道前正言金爲民, 江原道宗簿副令李堂. 以黃儼等將至也. 於是 有紋得四十五枚, 之混得百六十四枚, 爲民得百五十五枚, 堂得九十枚以來.”

42) 『태종실록』 권13, 7년 5월 18일(신미)조: “朝廷使臣司禮監太監黃儼·尙寶司尙寶奇原, 奉勅書來. 勅曰: 聞王父舊有舍利, 在天寶山等處. 今令太監黃儼等迎取, 可一一發來.”

43) 『태종실록』 권13, 7년 5월 20일(계유)조: “太上王請黃儼·奇原, 宴于德壽宮. 太上王出寶藏舍利三百三枚以授 儼, 儼喜甚, 叩頭而受.”

44) 『태종실록』 권13, 7년 6월 6일(무자)조: “黃儼·奇原等還, 上附奏曰: 謹將臣父臣諱舊日奉藏舍利三百顆及臣奉藏一百顆, 見今差官遍行境內諸山各寺, 迎取舍利四百顆, 總計八百顆. 謹備鍍金銀盒, 并內玉盒, 外用銀裹小函盛貯, 銷金黃羅袱,

을 보낼 정도로 조선의 불상이나 사리에 대해 몹시 심취해있었다. 그는 이때 조선에서 가져온 불상과 사리도 천희사(대보은사)에 보내졌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아마도 천희사(대보은사)에 모시는 생모 공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영락제가 법화사 삼존불상을 가져오게 한 것은 제주도의 형세를 정탐하려는 목적 외에 생모 공비를 모시기 위한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조선 출신 황엄 자신도 조선 불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407년(태종 7; 영락 5) 6월 16일에 황엄이 귀국하는 도중에 開城 廣利寺를 지나다가 금속제 千手觀音像을 가지고 갔다.⁴⁵⁾ 영락제 조서에는 광리사 불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황엄이 광리사 불상을 자신의 원찰에 모시기 위해 가져갔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V. 法華寺 三尊佛像의 행방

앞에서 밝혔듯이 1406년(태종 6; 영락 4)에 명 영락제가 보낸 칙서에서 선황고(홍무제)와 선황비(마황후)의 은덕을 기리며 제전을 거행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해 7월에 황엄 일행은 조선 조정의 도움을 받아 법화사 삼존불상을 가지고 서울을 떠나 명나라 京師로 향했다. 당시 京師는 남경이다. 이해 9월에 황엄 일행이 삼존불상을 가지고 남경에 도착했다. 이해 12월에 영락제가 법화사 삼존불상 이송 과정에 참여한 한첩목야를 다시 조선에 보내어 불상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답례를 표시했다. 영락제가 법화사 삼존불상을 안치할 장소는 대외적으로 홍무제와 마황후를 기리는 사찰인 남경 천희사, 즉 곧이어 개명된 대보은사이다.

并綵段造成繡袂袂包裹, 差陪臣李貴齡, 齎擎一同欽差官奉進.”

45) 『태종실록』 권13, 7년 6월 16일(무술)조: “黃儼過開城廣利寺. 取各手觀音鑄像而去.”

법화사 삼존불상이 남경 천희사에 안치된 이후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결론을 도출하자면 법화사 삼존불상은 화재 속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화사 삼존불상이 남경으로 가져온 연도는 1406년(영락 4; 태종 6)이고, 천희사가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전면 소실되는 연도는 1408년(영락 6; 태종 8)이다. 앞서 영락제의 칙령에서 보듯이 천희사가 전면 소실된 이후의 모습은 한마디로 완전 황폐화 그 자체이다. 전각과 행랑은 모두 불타고, 부도가 완전 무너지고 갈라졌다. 사찰터에는 무너진 기와와 자갈로 가득하며, 주위를 돌아보아도 빈 언덕과 초야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천희사 불전 안에 모셔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법화사 삼존불상은 이번 방화 때에 완전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존불상의 재질은 동이다. 동의 용점은 1083.84도이다. 2005년 4월에 襄陽 洛山寺 화재의 경우처럼 銅鐘이 불에 의해 녹아버렸다. 설령 이번 천희사 화재 때에 법화사 삼존불상이 요행히 보존되었다고 치더라도, 청 함풍 연간 천경의 난일 때 대보은사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난을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다. 또 설령 법화사 삼존불상이 천경난의 재난에서 잔해물 형태로 남아있었더라도, 곧이어 대보은사터에 병기공장이 들어서면서 잔해물은 폐동으로 처리되어 용광로에 사라졌을 것이다.

최근 남경시박물관은 대보은사 발굴 현장에서 불상 5기를 발견했다. 얼마 전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남경을 찾아 박물관 考古部에게 문의했다. 고고부부주임 祁海寧의 말에 의하면 불상이 발견한 장소는 15m 깊이를 가진 우물 속이다. 목불 3기이고, 동불 2기인데, 모두 크기는 50cm 이하이다. 동불은 金으로 입혀졌으며, 청대 제품으로 의심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 불상 조건은 법화사 삼존불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VI. 南京博物院 소장 木造 觀音菩薩像

명나라가 제주도 법화사 불상을 가져간 것은 아미타삼존불상, 즉 가운데 본존에는 阿彌陀如來佛을 모시고, 좌협시에는 觀音菩薩佛, 우협시에는 大勢至菩薩佛을 각각 모신 불상이다. 불상의 제작자는 원나라 良工이다. 각 불상 본체의 크기는 7척 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화사 삼존불상을 운반할 때 감실 15개를 사용하여 불상 본체와 여러 부속물들을 나누어 담았다. 그 중에서 불상과 火光을 담은 감실은 모두 3개인데, 각 감실의 높이와 너비가 각각 7척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은 남경으로 가져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희사의 방화 때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만의 하나라도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선행학자들은 예전부터 남경 지역에서 법화사 삼존불상을 찾는 작업을 해왔고, 이번 조사에도 대보은사터 발굴현장, 남경박물관, 남경시박물관 등지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중에 가장 주목했던 사항은 관음보살상이 소장되어 있는 남경박물관이다.

남경박물관은 남경성 中山門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1933년에 蔡元培 등이 제창하여 國立中央博物院籌備處를 만들었고, 1950년에 국립남경박물관으로 개칭했다. 박물관 신관 1층에는 珍寶館이라는 전시실이 있다. 진보관 중앙에 사각기둥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관음보살상이 전시되어있다.

관음보살상의 전체 크기는 192cm이다. 관음보살은 연꽃 좌대 위에 서있다. 전체 형상은 기다랗고 가냘픈 느낌을 준다. 머리는 螺髻를 하고 있고,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 모습은 살포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전체 이목은 뚜렷하다. 커다란 귀는 드리우고 있으며, 코는 오뚝하고, 두 눈은 살짝 뜨고 있다. 상반신은 노출이 되어있고, 하반신은 裙을 입고 있다. 가슴은 상당히 풍만하며, 허리는 매우 가늘다. 오른손은 불자를 잡고 어깨 위로 재치고 있으며, 왼손은 披巾을 잡고 있다. 다리는 기다랗고, 발은 맨발이다. 목에는 三道를 하고 있으며, 화려한 瓔珞을 길게

드리고 있다. 허리를 살포시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틀고 있다. 몸은 앞으로 조금 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피건은 몸 전체를 두를 정도로 기다랗고, 襖은 발목까지 드리고 있다. 楊軍과 應海康이 그린 관음보살상의 도면에 의하면 보관, 손 부분은 따로 제작되어 합쳤으며, 훗날 소장자가 얼굴, 영락, 피건 등을 부분적으로 보수했고, 좌대 일부가 조금 갈라졌으며, 좌대 하단이 좀이 좀 먹었다고 적혀있다.⁴⁶⁾

1950년대 남경박물관에서 관음보살상을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그 인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남경박물관은 관음보살상을 박물관을 대표하는 문물로 꼽고 있다. 남경박물관 팸플릿을 보면 남경박물관 제목 아래 관음보살상의 사진을 실고 있다. 팸플릿에는 관음보살상이 “木雕觀音 遼代”라고 해제해 놓

았다. 현재 진보관 전시실에는 관음보살상에 대해 어떠한 이름표나 설명서를 찾아볼 수 없다. 예전에 남경박물관에서 관음보살상을 본 몇몇 국내학자들은 이름표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만약 이 불상이 요대 또는 조선과 관련이 있다면, 법화사 삼존불상이 갖고 있던 조건과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아미타삼존불상에는 관음보살상이 포함되어 있다. 요대 불상과 원대 불상은 모두 북방계통의 불상이다. 바로 이러한 부합되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내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남경박물관 관음보살상과 법화사 삼존불상은 서로 다르다. 사안 해결의 관건은 바로 불상 재질에 있다. 남경박물관 관음보살상의



관음보살상(남경박물관)

46) 楊軍·應海康, 「院藏木雕觀音立像時代考」(『南京博物院集刊』, 1987-9, 南京博物院), p.100.

재질은 나무이고, 법화사 삼존불상은 동이다. 어쨌든 간에 관음보살상의 내력을 알기 위해 남경박물관 文物保管部에 문의해보았다. 문물보관부 楊海濤는 1947년에 조선인 向永嘉가 관음보살상을 국민당정부에게 기증했고, 국민당정부 教育部가 국립중앙박물관(현 남경박물관)으로 이관시켰다고 했다. 조선인 향영가의 생애에 대해 여러 문헌들을 조사해보았는데, 아쉽게도 관련 기록도 찾지 못했다. 향영가가 왜 관음보살상을 기증했고, 관음보살상이 원래 어디에 소장되었으며, 누가 언제 조각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국내에는 향씨가 없다.

관음보살상의 제작 연도와 국적에 대해 여러 설이 많다. 팜플렛에서는 요대, 楊軍과 應海康은 명대,⁴⁷⁾ 관음보살상을 본 국내학자들은 조선과 관련 있는 불상이라고 했다. 이외에 관람객 사이에는 송대, 명청시대 또는 근자 골동상의 위조품이라는 설도 있다.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 郭東錫에게 관음보살상의 사진을 보내고 자문을 구했다. 그는 실물을 보지 않는 상태라서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중국불상이며, 시대는 요대불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문경은 일본 불상수리 전문가인 高橋俊夫에게 관음보살상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高橋俊夫는 관음보살상이 백제 계통 불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다.

VII. 결 론

제주도 법화사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도민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사찰이다. 법화사에는 고려 말기에 원나라 良工이 만들었던 銅製 阿彌陀三尊佛像이 있었다. 조선 태종 연간에 법화사 삼존불상이 명나라로 이송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1406년(태종 6; 永樂 4)에 명

47) 楊軍·應海康, pp.100-103, 105.

永樂帝는 내관 黃儼 일행을 조선에 보내어 先皇考(朱元璋)와 先皇妃(馬皇后)의 명복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제주도 법화사 삼존불상을 보내 달라고 했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법화사 삼존불상을 명나라로 보냈다. 삼존불상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황엄 일행은 무리한 요구를 하여 조선 관리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

법화사 삼존불상은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南京의 天禧寺(곧이어 大報恩寺로 개명)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희사는 洪武帝(주원장)가 중건했던 사찰이었다. 영락제는 정치 안정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중수했다. 그러나 1408년(영락 6; 태종 8)에 천희사는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완전 소실되었다. 이때 법화사 삼존불상도 함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곧이어 영락제는 궁궐 제도에 준하여 사찰의 면적을 크게 확충시키며 제반 전각과 보탑을 화려하게 축조하고, 사찰 명칭도 대보은사로 바꾸었다.

대보은사의 정전에는 영락제의 생모 碩妃를 모셨다. 공비는 고려인 출신이다. 영락제가 법화사 삼존불상을 구하는 목적에는 명나라가 제주도 형세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여겼던 조선 조정의 판단 외에 고려인 출신 생모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보은사는 1856년(청 咸豐 6) 太平軍에 의해 유리보탑이 무너지고 완전 폐허화되었다. 오늘날 남경시에서 대보은사의 유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머지 않는 장래에 사찰이 복원될 것으로 믿어진다. 南京博物院에는 1947년에 조선인 向永嘉가 기증한 木雕 觀音菩薩像이 있다. 이 관음보살상이 혹시 법화사 삼존불상의 하나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보았으나, 불상의 재질이 달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관세음보살의 제작국적과 조대, 기증자의 생애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燁赫之樂室; 戊子陰菊月廿九日]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Statues of Buddha of Beophwa-sa(法華寺) in Jejudo(濟州道) and Dabaoen-si(大報恩寺) in Nanjing(南京)

Park, Hyun Kyu

There is a temple named Beophwa-sa in Seogwipo, Jeju. Beophwa-sa was a templ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geomancer in the period of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Emperor Yongle of Ming dynasty dispatched an officer to Joseon to demand the statue of Amitabha of Beophwa-sa in 1406. The government of Joseon thinking over the diplomatic relation with Ming sent the statue to Ming. It seemed that the intention of Emperor Yongle to demand Beophwa-sa's Three Statues of Buddha included the purpose of the observation of topography of Jeju and praying for the soul of his mother, a woman from Goryeon. It seemed that the Three Statues of Buddha of Beophwa-sa was placed in Tianxi-si(changed its name as Dabaoen-si soon after) of Nanjing, the capital of Ming. There is good possibility that the statue from Beophwa-sa was vanished when Tianxi-si was burned in the fire completely in 1408. Nanjing Museum has a wooden statue o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contributed in 1947 by Hyang Youngga, a Korean. It is concluded that the statue o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are not the very statue from Beophwa-sa because of the quality of its material.

주제어: 법화사, 삼존불상, 제주도, 남경, 천희사, 대보은사, 영락제, 남경박물관, 관음보살상.

關鍵詞: 法華寺, 三尊佛像, 濟州道, 南京, 天禧寺, 大報恩寺, 永樂帝, 南京博物院, 觀音菩薩像.

Keywords: Beophwa-sa, the Three Statues of Buddha, Jejudo, Nanjing, Tianxi-si, Dabaoen-si, Emperor Yongle of Ming dynasty, Nanjing Museum,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2009년 1월 2일 원고접수, 2월 1일 심사완료, 2월 5일 심사결과 통보, 2월 10일 수정원고 및 소명서 접수, 2월 21일 게재 확정)

K C I